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

구강보건 정책에 관한 심포지엄 盛了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사업에 관한 주제」



〈지난 11日 개최된 심포지엄 開會式 광경〉

구강보건정책개발에 관한 심포지엄이 치협 임원을 비롯 각 치대교수, 개원의,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정부관계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소피텔엠베서더호텔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 이어 제1, 2부 주제발표 및 토의, 제3부 종합토의순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6명의 연자와 11명의 토의자가 참석,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및 교육 인력개발 등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토의결과를 총 8개사항의 건의문으로 작성, 보사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이날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계획」이란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선 오대규 보사부 의정국 지역의료과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리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구강치료를 받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수도불소화 사업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면의 열구전색사업 등 기존의 예방사업과 구강 보건 교육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에 따른 신규사업의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金鎮範교수(신구전문대)는 「구강보건사업개발」에서 국민 대다수가 구강병 치료를 위해 연간 6천4백84억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며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불화사업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킬것과 계속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